

# 현실의 참담함 딛고 평화 노래하는 시인들

시로 읽는 평화, 평화론



시인들은 평화가 훼손된 현실의 참담함 속에서 평화를 갈구한다. 그것은 소박한 밥상머리에서 나오기도 하고 마음의 근원적인 고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들에게 평화란 그들이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마음의 공간이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에서 이뤄야 할 목표표로 그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

## 평화 훼손된 현실에서 평화 노래하기

러시아 시인 안드레이 보즈세넨스키의 <나에게 평화를!>에는 평화가 훼손된 세계의 절망이 드러나 있다. 그가 속한 세계는 “수다쟁이와 낭화의 소란이 판치는” 곳이며 “빨간 담배 불빛처럼 / 개들의 말없는 헛바닥이” 빛나는 곳이다. 그는 평화를 열망하고 있지만 “내 신경이 타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현실의 절망감 때문에 “나에게 평화를”이라며 평화를 열망하는 시적 정황이 역설적으로 표현된다.

“소나무 그림자가 / 우리를 자극하며 움직이게 했으면, / 마치 차가운 불행이 / 등줄기를 따라 새끼발까지 훑어 지나가듯이, / 나에게 평화를—”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망>에서 ‘나비’는 평화를 갈구하는 시적 자아이다. 이 시에서 평화는 ‘꽃밭’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 평화는 ‘철조망’에 의해 훼손됐다.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나비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꽃밭’이다. 나비에게 꽃밭은 근원적인 평화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곳은 철조망이라는 물리적인 벽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의 안길”이라는 좀더 근원적인 마음의 길을 거쳐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평화의 ‘꽃밭’에 비하면 지금 나비를 가로막는 ‘철조망’은 “어슬픈 표시의 벽”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시인들은 평화를 “김치찌개 하나 둘러앉아 / 저녁 식사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에서 찾기도 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물과 세계에서 찾기도 한다.

곽재구의 <김치찌개 평화론>에 표현된 평화는 비록 소박한 밥상

머리의 평화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부패와 좌절과 / 거짓 화해와 광란하는 십자가와 / 덩석몰이를 당한 이웃의 신음이 없다”. 또 거기에는 “38선도 DMZ도 사령관도 친일파도 / 염병할, 시래기 한 가닥도 못한 /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포성도 없다”. 곽재구에게 평화는 이런 것들이 모두 없는 것이다. “실한 비계 한 점 아들의 손가락에 올려주는” 어머니의 마음이고 “따뜻하고 폭신한 서정의 힘”이다.

## 세계의 평화부터 개인적 평화까지 다양해

파블로 네루다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에 평화를 주문한다.

“날마다 찾아드는 황혼에 평화 있어라 / 다리 위에 평화 있어라 / 술에 평화 있어라 / ... / 미시시피강 위에 평화 있어라 / 내 아우의 내의에 평화 있어라 / 바람이 쓰고 간 것 같은 책에 평화 있어라 / ... / 비오비오의 모든 제재소에 평화 있어라 / 스페인 게릴라의 / 파괴된 심장에 평화 있어라”(<평화 있어라>).

그는 “다시 빵에 피가 묻는 것을 / 강낭콩에 피가 빨갛게 물들고 / 음악이 피를 쏟아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에게 이런 평화는 그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광부도 처녀도 / 변호사도 어부도 / 인형 만드는 사람도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다.

에이츠의 <이니스프리의 호수섬>에 나타난 평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평화다.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 거기 나뭇가지 위어 진흙 바른 작은 오두막을 짓고 / 아홉 이랑 콩밭과 꿀벌통 하나 / 벌 윙윙대는 숲 속에 나 혼자 살으리”(<이니스프리의 호수섬>).

그에 비하면 마중기는 <그리고 평화한 시대가 오더라>에서 나라도 버리고 역사도 버리고 전 인류로 확대되는 평화를 꿈꾼다.

“그리고 평화한 시대가 오리라 / 고구려의 땅도 발해의 별판도 / 마음이 착해 주어버리고 국립자연공원이 된 완충지대, / 그 공원을 뛰어가는 토끼 한 마리 분다.”

평화는 그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든 인류의 과업이든 모두 소중하다. 평화는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근원적인 것이며 마침내 인류가 이뤄야 할 세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시인들이 꿈꾸는 평화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김정근 기자